

대연정·재벌 개혁·공수처 ‘불꽃 공방’

민중 경선 2차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6일 2차 합동토론회에서는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를 놓고 후보 간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차기 정권에서의 개혁 과제와 구체적 방법을 묻는 대목에서 각 후보들은 핵심 공약을 내세우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 양극화 해법=사회 전반의 양극화 문제 해법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그는 이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높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노동시장 내부의 차별화 문제 등 구조적 불평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해법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노동이사제 도입과 노동법원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감세를 철폐,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의 독점을 해체하고 노동자를 보호해 복지를 확대해야 다수인 약자가 핏박받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적폐 청산=문재인 전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헌법재판소 불법 사찰 의혹을 거론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정치에 개입하고 종북 물의를 해온 국정원에 적폐 청산과 관련한 책임을 묻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낡은 인식과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고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협치의 정신을 살린다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견제하는 민주주의도 가능하고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



한지봉 네 경쟁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왼쪽부터)과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최성 고양시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삼양동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열린 오마이TV 주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양극화 해법

文 “좋은 일자리 늘려야”
安 “노동구조 불평등 개선”
李 “부자 감세 철폐”

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소수 감자가 아닌 다수 약자의 편을 드는 공정한 정부로 정경유착과 같은 부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유의 ‘친서민 정책’을 내세웠다.

◇ 개혁 과제=차기 정권의 개혁 방법론을 놓고 ‘대연정’이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적폐청산에 동의

■ 적폐 청산

文 “검찰·국정원 개혁”
安 “협치 통한 권력 견제”
李 “친서민 정책 도입”

하는 아젠다를 연정이 가능하다”면서도 “타협 때문에 적폐청산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해 다시 한번 대연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의회정치의 가장 강력한 다수파와 대통령의 협치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 지사는 “어느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현재의 조건으로 3년을 더

■ 개혁 과제

文 “적폐청산 최우선”
安 “대연정 통한 협치”
李 “野 연합정권 구성”

가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 과제 합의’를 전제로 의회의 가장 강력한 다수와 협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발목잡기를 피하려고 온 몸을 내줄 수는 없다”며 대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젠다 합정권으로 과반 의석을 만든 뒤 ‘개혁 발목잡기’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처럼 국민의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바른정당, 외연 확대로 반전 모색

정운찬 탄핵 결정 후 합류 유력...김종인에 ‘리브콜’

바른정당이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서 대선 경선모드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바른정당은 외부 영입을 통해 당의 활력소 찾기에 나섰다.

우선 외연 확대의 핵심은 정운찬 전 총리의 영입과 김종인 전 민주당대표와의 연대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총리를 영입해 당내 경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바른정당은 상당한 공을 기울여왔다. 김무성 의원이 이미 수차례 정 전 총리와 접촉했으며 정 총리와 같은 충청권 출신인 홍문표 의원도 정 전 총리에게 입당을 권유했다.

바른정당은 탄핵 결정 전후로 입당 시기가만 달라질 뿐 정 전 총리의 입당 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도지사도 정 전 총리의 입당 가능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바른정당은 정 전 총리의 경선 합류를 염두에 두고 경선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도 정하지 않았다.

반면, 김종인 전 대표와의 연대는 김 전 대표의 민주당 탈당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3차 연대론을 주장하며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세력과 각을 세우고

있는 김 전 대표가 탈당을 실행으로 옮길 경우 바른정당은 반패권과 개혁을 고리로 김 전 대표와의 연대에 나설 계획이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5일 광주·전남 시도당 창당대회에서 김 전 대표의 탈당을 예상하면서 “개혁과 반패권 연대는 우리와 뜻이 맞기 때문에 만약 탈당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와 대화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달 28일 김종인 전 대표·정운찬 전 총리와 함께 경제 토론회를 마친 뒤 “김 전 대표께서 민주당을 나오셔서 제3지대를 한다면 저나 바른정당이나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김 전 대표가 민주당 내 일부 비문(비문재인) 세력과 함께 탈당해 독자 세력을 구축할 경우 대선후보 단일화를 시도하거나 합당해 몸집 키우기에 나선다는 생각이다.

한편, 남 지사는 6일 바른정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바른정당은 지난 3일부터 후보 신청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난 후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안철수·손학규 “국민통합 책임자는 나”

국민의당 추천서 최고위...경선룰 입장차는 여전

국민의당 대선 예비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국민통합’의 책임자임을 서로 강조하며 민심잡기 경쟁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와 기자간담회에 나란히 참석,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통합 및 화합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현재 결정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며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 그러나 헌법 절차에 따라 현재가 결정하면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도 “대한민국이 둘로 갈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우리는 개혁으로 통합을 이뤄야 한다.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뤄서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이루는데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책에 있어 선의의 경쟁구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선 룰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환·박우선 대선기획단 공동단장과 장병만 선관위원장, 김삼화 사무총장, 이영호 TF팀장, 그리고 각 후보측 대표가 모여서 경선 룰을 완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드 대책도 3色 격돌

文 “전략적 모호 필요” vs 安 “약속 준수” vs 李 “철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국내 배치 문제를 놓고 시각 차를 드러내며 설전을 벌였다.

우선, 문 전 대표는 “이런 문제는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로 하는 순간까

지 유지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외교”라고 주장했다. 또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 문제다. 한미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간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내부적으로 공론화와 국회 비준을 거치고, 중국 및 미국과 외

교적으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지사는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표현도 애매하다. 국민이 볼 때는 멋 들어진 태도도 아니고, 그런 태도로 문제가 풀릴 것이지 불신하는 것 같다”고 문 전 대표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사드 배치 철폐를 주장하는 이 시장을 겨냥, “한 사드 문제를 한미동맹의 중국붕쇄라고 단언해 놀랐다. 그러면 외통수가

될 수 있다”면서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배치 철폐는) 절대로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가 애매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국이 압박하는 것이다. 차기 정부를 이끌 가능성이 큰 민주당 후보들이 중국은 경제 제재를 멈추고, 미국은 서두르지 말고 공동입장을 내지”고 제안했다. 또 안 지사의 비판에는 “현재 상태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중미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월5백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70㎡ 현 신발대리점 입점 매 20억원 (보5천/월9백만 포함)
- 월계동 3층 상가점포 500㎡ 매 8억5천 (학원, 독서실, 임대가)
- 선암동 1층 상가점포 102㎡ 매 5억원(조정가)
- 나주 혁신도시 1층 상가점포 123㎡ 매 9억4천(조정가)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 24억원(보1억6천/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480㎡ 매 9억8천 (보6천5백/월400만원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화정동 대지 980㎡ 매 49억원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 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산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장덕동 키즈카페(자동차체험형) 300㎡ 5천/월365만
- 수원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7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7년 1월 23일(월) ~ 2017년 3월 10일(금)
- 수업기간 : 2017년 3월 2일(수) ~ 2017년 6월 10일(토)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8:00~21:00
- 수강료 : 20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igelong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